아일랜드인 '존 리' 씨 向學熱 지켜주세요

〈향학열〉

유럽 한국불교 연구… 경제적 문제로 학업 중단 위기

한국에서 6년간 머물며 한국불교를 공부하고,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가 '한국불교 포교'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존 리(John Lee, 본명 John ㅁD Laoidh · 38 · 사진)' 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존 리 씨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사연과 연구개요를 소개하며, 뜻 있는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린다.

한국불교 사랑한 John Lee

존 리는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네팔서 위빠사나를 배웠다. 이후 태국 · 라오스 · 중국 · 티베트 등을 순례하며 불심(佛心)을 쌓았다. 선불교에 관심이 많아 동아시아 국가서 살 계획을 세웠고, 2006년 한국에 왔다. 그가 선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택한 이유는 일본의 제국 민족주의적인 선불교가 싫고,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진짜 선불교가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용마초등학교에 영어강사로 취직 후 매주 안국선원을 다니며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와 지눌의 한국선 수증론을 공부했다.

존 리는 2007년 말 아일랜드로 돌아갔다가 2009년 한국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다시 왔다. 한국어 공부와 불교강의 청강을 병행하면서 한국불교의 '선교일치'에 매료됐다.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중론 강의를 듣고, 화쟁아카데미서 한문도 배웠다. 꾸준히 불교공부를 한 뒤 2014년 조계종 국제불교학교에 보조강사로 취직했다. 그는 불교가 좋아 취직한 국제불교학교에 출퇴근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6번씩 갈아타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 리는 한국에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해 빚을 떠안았고, 이를 갚는데만 수년이 걸렸다.

이렇게 6년 반 동안 한국서 머문 존 리는 지난해 아일랜드 콜크(Cork)대학교서 '한국불교 포교'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지난 1년은 그간 모아둔 돈으로 마칠 수 있었지만 다음 1년은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콜크대에 불교학 관련 장학금이 없고, 아일랜드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타 장학금은 지난 5년간 최소 3년 이상 아일랜드나 유럽에 거주해야 하는 자격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조계종 포교원의 '대학생 우수불자 장학금 지원사업'에 신청해봤지만 외국인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6년 반 동안 한국서 공부
한국불교 '선교일치' 매료
국제불교학교서도 근무해

한국서 전세금 사기 당해
학업 이어가는 데 어려워
장학금 자격요건도 안 돼

유럽과 한국禪 확대 연구

존 리는 '유럽을 배경으로 한 현대 한국선(禪)의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유럽 각지의 한국불교 수행센터(폴란드 우봉사 · 파리 길상사 · 헝가리 원광사 등)를 방문해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각국의 대중이 한국불교와 교류하는 방식 및 수행으로 얻는 이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미치는 한국불교의 포교 영향을 확인하고, 유럽국가에 맞는 포교방법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즉 영어에 기반을 둔 획일적인 포교 활동이 미국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존 리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박사과정 2학년 등록금이다. 1년 등록금은 5770유로(한화 약 750만원)로 오는 9월까지 학교에 내야 한다. 이외에 현장조사나 도서구입 등 부수 비용으로 매월 1000유로(한화 약 130만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자신의 사연을 전한 존 리 씨는 "문전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럽지만 한국불교가 일천한 아일랜드와 유럽을 위한 지원으로 간주하고 도와주셨으면 한다"며 "불교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달리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일부라도 도움 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2004-8255(현대불교신문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심택사, '아파트 숲'에 고립 위기

은평 응암2구역재개발사업 착공 '코앞'
소방차 진입 불가… 문화재 훼손 우려

응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전통사찰 심택사가 아파트 숲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6 · 37번지 일대 12만㎡에 추진 중인 응암2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10월 은평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는 건물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곧 착공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사업구역 산자락 끝에 위치한 조계종 심택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모양새다. 심택사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 대웅전보다 4층이나 높은 1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심택사와 아파트 사이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될 예정인 것.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사실상 심택사가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게 됐다"면서 "그동안 은평구와 서울시, 권익위 등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청은 은평구청에, 은평구청은 재개발사업조합 측에 민원을 내려보냈다. 최종적으로 받은 회신은 모두 민원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고 성토했다.

효탄 스님은 특히 공사가 강행될 경우 심택사 진입도로가 전부 막혀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심택사 소장 국가보물 '묘법연화경' 등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도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효탄 스님은 "주진입로(폭 15m)가 백련산 등산로 입구 약 50m 전에서 오른쪽으로 순환되고 그 지점부터 백련산 등산로 입구와 심택사까지는 폭 6m(인도 2m)로 설계돼 있어 차량의 교행과 회차가 불가하다"면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등산객이 크게 증가할 텐데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아파트 입구부터 등산객 차량으로 뒤범벅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산불이 날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순식간에 문화재로 불이 옮겨 붙어 소실 우려가 있는데도 은평구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한편 효탄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은 7월 17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은평구의 엉터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도로와 주차계획, 도망권을 다시 조정한 후 조합 측의 착공계를 수리하라"는 감사청구를 제출했다. **박아름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낙관 없는 휘호가 주는 교훈

③ 가정방문

마당가 연못에 수련 꽃이 피어 있던 한 여름이었다. 법정 스님께서 예고 없이 전화를 주셨다. 내일 내 산방으로 가정방문 갈 것이니 외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가정방문.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이런저런 속사정을 살피고 가는 게 가정방문이었던 것이다. 나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어머니와 고향이 같아서 누님, 동생하고 친근하게 지냈던 것이 기억난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목포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수업시간인데도 뒷자리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남진에게 군밤을 먹인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던 김남규 선생님이었다.

담임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 집안은 잠시 긴장을 하게 마련이었다.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어머니는 음료수나 과일을 준비했다. 그러나 나는 담임선생님이 나의 수업태도나 성적 같은 것을 고자질하지 않을까 싶어 떨떠름해 있기 일쑤였다. 담임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나의 처지는 늘 불리한 편이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가정방문의 마무리였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방문은 비록 내가 불가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학창시절의 가정방문과는 달랐다. 스님은 내가 우린 차를 마시면서 나에게 주로 격려를 하셨다. 산중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육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말할 수 없이 좋은 변화'라고 하셨고, 나를 서울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보인다고 하시며 "사람이 자연에서 멀어지면 병원이 가까워진다"고 덧붙이셨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연못에 물을 대는 고무호스를 보고는 "나무나 대나무로 바꾸시오"라고 즉석에서 지적하셨다. 스님은 내 산방을 떠나신 뒤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셨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남쪽에 내려간 김에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 내려가 흙을 만지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친지를 방문했다. 소비와 소모의 땅,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그 의지와 결단에 우선 공감했다. 작가인 그는 새로운 터전에서 살고 싶어 새로 집을 지어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채소를 가꾸면서 작업을 한다. 보기에 아주 건강한 삶을 시도하고 있다.'

스님의 흔적은 또 있다. '무염(無染)'은 스님께서 주신 나의 법명인데, '무염산방(無染山房)'이란 현판 글씨이다. 스님은 낙관을 찍는 것은 자기 글씨 자랑하는 거라며 낙관을 찍어주지 않았다. 다만 방에 걸어둘 글씨라면 낙관을 찍어주시겠다며 한 점을 더 써주셨는데, 나는 지금도 스님의 친필 글씨 두 점을 보관하고 있다.

낙관이 없는 현판 글씨를 볼 때마다 나는 자기질서를 철저하게 지킨 생전의 스님을 대하는 것 같아 어영부영 흐트러지려는 나를 바로잡곤 한다. 사람들은 낙관이 있어야 글씨의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 반대다. 낙관이 없으므로 나에게는 더 보배가 된 것 같다. 내 산방을 찾아오셨던 스님의 가정방문이 오늘따라 사뭇 그립다.

"일주문 앞 무분별한 시위 삼가라"

조계사 신도회, 7월 21일 기자회견서 지적

신도 · 관광객 배려 당부

최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시위에 조계사 신도회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7월 21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사 일주문 앞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날 신도회는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하루도 빠짐없는 시위로 인해 조계사가 그동안 노력해온 대외적인 이미지도 실추되고 초심자들까지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사찰의 대문인 일주문 앞에서 다수의 인원이 온종일 시위하는 것은 무형의 겁박이자 폭력과 다르지 않다. 특히 불자나 불교단체를 표방하면서 신행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조계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언행과 홍보물들은 시위 참여자들이 불자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보에 귀의한 불자들의 시위라면 사찰에 대해 기본적인 배려는 해달라" 당부한 뒤 △다수가 아닌 1인 시위도 주장의 전달은 충분하다 △시위의 홍보물은 하나면 충분하다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낭독을 일주문 앞에서 할 필요없다 △승가에 대한 비방은 스스로 불자가 아님의 표현이라며 일주문 앞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피켓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영환 수석부회장은 "내용은 중요치 않다. 시위의 방식이 불법(佛法)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 "여러 신도회 등 교계 단체와 의기투합해 더욱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김문주 신도회 사무총장, 박종화 신도회 포교사회본부장, 김미자 신도회 교육본부장 등 조계사 신도회원 20명이 나섰다. **박진형 수습기자**

템플스테이

2018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17년 8월	2017년 8~9월	2017년 9월	2017년 9월	2018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7년 7월 24일(월) ~ 8월 17일(목) 까지
···▸제출서류 : ① 2018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①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파일제출 : juk@templestay.com으로 제출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 02)2031-2034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수암